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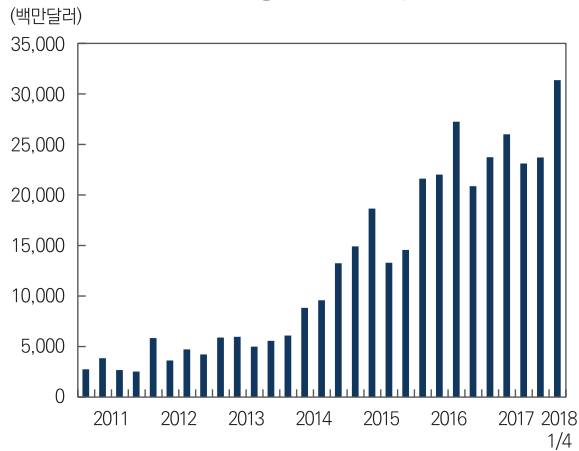
최근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확대

- 2018년 1/4분기 거주자의 외화증권 투자규모가 300억달러(결제기준)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
 - 특히 미국, 홍콩, 일본,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해외주식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한 반면 해외채권 투자는 소폭 증가에 그침
 - 지역별로는 유로채 중심의 유로시장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미국, 홍콩 등의 비중은 증가
-
- 2018년 1/4분기 거주자의 외화증권 투자규모(결제금액 기준)¹⁾가 300억달러를 돌파하며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투자 완전 개방 이후 최대치를 기록²⁾
 - 우리나라는 2006년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투자와 관련된 대부분의 규제가 철폐되었으며 이후 해외 시장 충격에 의한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임
 -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직접투자 한도 폐지(1998년),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대상 제한 폐지(2006년)
 - 외화증권 투자규모는 2016년 1/4분기 200만달러를 넘어선 이후 국내 저금리 지속, 글로벌 경기 호조, 증권사의 적극적인 외화증권계좌 영업 등에 힘입어 2018년 1/4분기 300만달러를 돌파
 - 2018년 1/4분기 외화증권 투자규모(결제금액 기준)는 313억달러로 전년동기(237억달러)대비 32.2% 증가하여 2017년 4/4분기(237억달러, 전년동기대비 13.6% 증가)의 큰 폭 증가세가 지속
 - 2018년 1/4분기말 외화증권 보관잔액은 364억달러로 전년동기(316억달러)대비 15.3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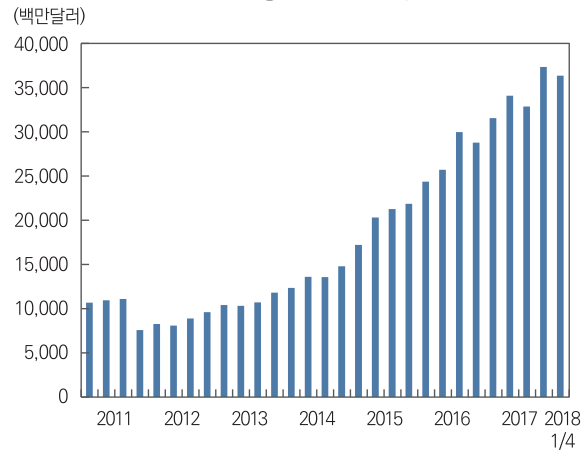
1) 국내 외화증권 투자자 중 개인투자자, 일반법인, 증권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 증권시장에 거래한 외화증권의 보관규모와 투자금액(결제금액) 통계를 사용

2) 한국예탁결제원, 2018.04.26, 2018년 1분기 한국예탁결제원 외화증권 보관규모 364억달러, 보도자료.

외화증권 결제금액



외화증권 보관잔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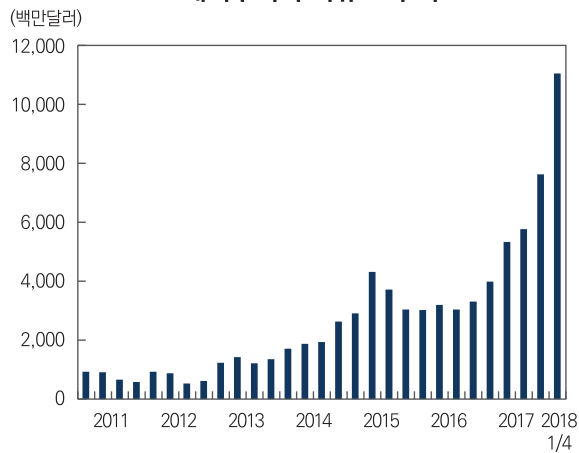
주 :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외화증권 결제 및 보관한 금액
 자료: 한국예탁결제원 SEIBro

□ 특히 2018년 1/4분기에는 해외주식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2011년 이후 최대치인 110억달러를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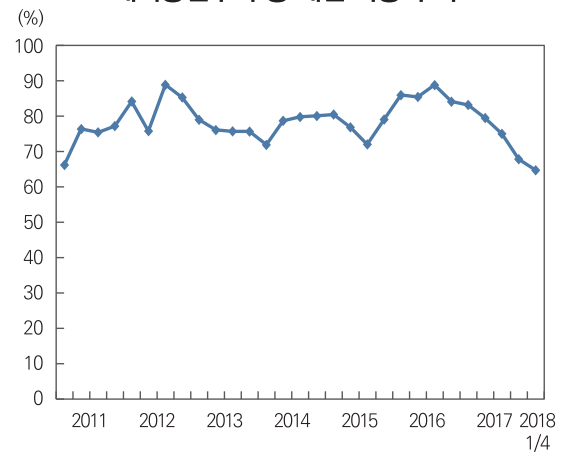
- 해외주식 투자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77.3%(직전분기대비 44.8%)의 증가를 보임
 - 2016년 4/4분기부터 매분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증가폭은 점차 확대
 - 외화주식 보관규모 상위 10개 종목 중 미국 5개(아마존, 알리바바그룹ADR, NVIDIA CORP, ALPHABET INC, ISHARES EXPTL TCG), 일본 2개(신일본제철, 라인), 중국 2개(평안보험집단, JIANGSU HENGRUI MEDICINE), 홍콩 1개(텐센트홀딩스)
- 2분기 연속 감소를 보이던 해외채권 투자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2.8% 증가한 202억달러를 기록하며 증가로 전환
 - 유로채³⁾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, 홍콩,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채권이 포함
 - 해외증권투자에서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3/4분기(88.8%)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여 2018년 1/4분기 64.7%를 차지

3) 발행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행국 통화 표시로 발행되어 거래되는 채권으로 보관기관인 Euroclear, Clearstream에서 결제되는 채권

해외주식 투자규모 추이



해외증권투자 중 채권 비중 추이



주 :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외화증권 결제 및 보관한 금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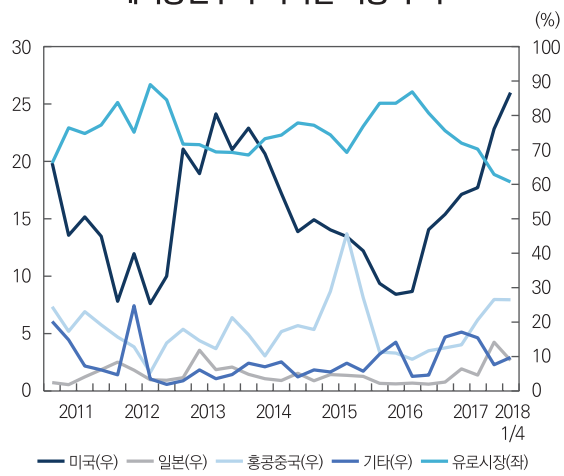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예탁결제원 SEIBro

□ 지역별로는 유로채를 중심으로 한 유로지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주식 투자 확대와 함께 미국을 비롯한 홍콩 및 중국 시장의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

- 해외증권거래에서 채권거래의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유로시장의 비중이 2016년 3/4분기 (86.8%)를 기점으로 최근(60.6%)까지 감소세를 보임
 - 전체 해외증권투자에서 채권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65%이며, 전체 채권거래 중 유로채가 93.6%를 차지
- 미국 시장으로의 투자금액은 주식투자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23% 증가한 81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비중도 최근 2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6%를 기록
 - 주식 투자금액은 2016년 3/4분기부터 최근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분기 증가폭 확대
 - 채권 투자금액은 최근 2분기 연속 증가세
- 일본 주식시장으로의 투자금액은 2011년 이후 10억~20억달러 사이에서 증감을 보였으나 2017년 4/4분기 투자금액이 직전분기대비 2배 이상인 100억달러로 급증하였다가 최근 소폭 감소
 - 일본 시장은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전액 주식 투자에 집중
- 홍콩 및 중국시장으로의 투자금액은 2016년 하반기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주식 투자금액이 크게 확대되어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
- 기타시장⁴⁾ 중 지난해부터 베트남 시장으로의 주식투자가 급증세를 지속
 - 베트남 주식 결제금액: 2016년말 0.5억달러 → 2017년말 2억달러 → 2018년 1/4분기말 3.2억달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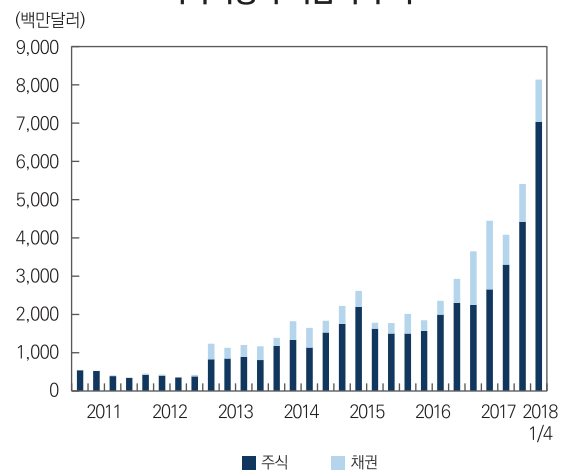
4) 유로지역, 미국, 중국, 일본, 홍콩을 제외한 기타국가로 영국, 캐나다, 호주, 싱가포르, 유럽, 아메리카, 오세아니아, 아시아 등

해외증권투자 지역별 비중 추이



주 :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외화증권 결제 및 보관한 금액
 자료: 한국예탁결제원 SEIBro

미국시장 투자금액 추이



선임연구원 김보영